

<2021년 12월 3일 금요일 새벽, 주 말씀>

* 새벽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주일말씀 주제>를 먼저 읽고 인식시켜 주고,
그다음에 <잠언>을 전해 줘야 된다.

모두 금주 말씀에서 나온 잠언들이니,
<주제>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그에 해당되게’ 깨닫는다.

* 설교자는 <잠언>을 읽어주기만 하지 말고,
잠언을 한 절, 한 절 풀고 해석해 주면서 설교해 주어야 한다.

1. 주와 더불어 행하여라. 그의 행함은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행하심이니라. 그는 삼위의 행하심을 따라 행하니, 사람인고로 쉽게 들리고 보임이니라.

2.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은 보고 듣고 행하니, 복이 있는 자니라. 그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도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낮이니라.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하니, 어둠에 묻혀 살기 때문이니라.

3.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상상도 못 하느니라.

4. 하나님과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행한 후에도 말을 다 못 하시느니라.

5. 개미라도 가만히 놓아두면 물고 뜯는다. 코끼리라도 다루게 되면

다스려지나니, 사람도 그러하니라.

6. 항상 인생들이 문제다. 그냥 두지 말고 쫓아가서 권고하고, 말해주고, 잡아당겨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하고, 사탄들이 끌고 가서 제 것으로 삼지 못하게 하여라.
7. 밥그릇에서 돌 한 개를 깨물어 충격을 받음으로 전체 쌀 단지의 돌을 골라내게 하는 여전이 되었으니, 돌이 든 밥그릇만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의 잘못된 문제로 인해 전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역사가 될 때도 있느니라.
8. 주가 하나님께 영으로 전달받고 육으로 행한 것을 말로 전해 주니, 말을 들어서만 주같이 실감할 수 없느니라. 너희도 주의 몸이 되어 행하여라. 그래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으로 접하여 깨닫고, 몸도 느끼고 실감하게 되느니라.
9. 영계에 들어가서 영과 육으로 접하고 느끼고 이야기한 것이라도, 영계에서 나와서 말로 전해 주면 실감을 다 할 수가 없느니라. 말은 행실보다 한 차원 아래이기 때문이니라.
10. 영계에 가서 보고 듣고 온 자가 세상에 와서 말해 주면, 사람들은 실감을 못 한다. 말이기 때문이니라.